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어췌어 응답해 드립니다. 성의 고비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030 서울시 중로구 정문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신문 ●FAX: (031)470-3116



대행스님

# 내 한생각 넓으면 둘 아니게 이끌어 갈 수 있어

(지난 호에 이어서)

▲크스님: 지금 이 방에 전구가 여러 개죠? 그런데 스위치를 하나 올리니까 불이 다 들어오죠? 또 요거를 몇 개만 켤 수도 있고요. 이걸 자유자재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자유자재권을 가졌어요. 그것은 예전에도 얘기했듯이, 여러분이 지수화장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광력·전력·자력·통신력이 충만해서 자유자재하게 끌어낼 수가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 여건을 자재하게 끌어낼 수 있으니 마음놀이입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니 마음으로 해결을 하라 이거죠.

그런데 나한테 와서는 요기가 아프고 저 일이 안되고, 무슨 돈을 줬는데 다 떼이고, 보증을 썼는데 집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는 등 이런 말을 할 때면요, 내가 기가 막힌 거 있죠? 기가 막혀요! '세상에 어쩌면들 저렇게 관습에 세뇌가 돼서 그냥 뛰어넘을 수가 없을까.' 하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씨가 먹히질 않아요. 능하게 좀 한 발짝을 떼어놓지를

▲질문자(남): 천도도 집안 살림 잡해야 다 해쳐 나갈 수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었습니다.

▲크스님: 그거야 그렇죠. 내 한생각이 넓으면 둘이 아니게 이끌어 갈 수가 있고요. 진짜입니다. 이걸 거짓말이 아니예요! 정말입니다! 이걸 부처님 말씀과도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발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질 일이 생겨도 너그럽게, 한번 믿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울고 짜고 해 봤자 소용없어요. 오히려 몸이 병이나 들죠. 그래서 안 되지 않습니까?

▲질문자(남): 다음 질문 올리겠습니다. 민간신앙에서는 혼인이나 장례 등 경조사를 치를 때 풍수지리를 따지거나 길일을 택합니다. 이 집은 방향이 좋지 않으니 자손에게 좋지 않다, 또는 점쟁이가 공합을 보러 간 사람에게 '이 두 사람이 사주가 맞지 않으니 결혼을 해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풍수지리 일진이 윤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가르침을 주시기 바랍니다.

관습에 꼬달리지 말고 그냥 뛰어넘으세요

능하게 좀 한 발짝 떼어놓으세요!

못해요. 그 어린애가 한 발짝 떼어 놔줄 때 부모가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네? '아이고, 너 한 발짝 떼었구나! 너 걸었구나!' 하고 말이에요. 그런 심정일 거라 이 소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 가난을 면하게 해 주려고 해도 떼어 놓질 않아요.

그러니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왜 당신네들이 저질러 놓고 당신네들이 그렇게 해결을 못해요? 해결을 못할 일이면 하질 말지, 애당초에! 아주 잘 생각을 하고 하든지 해야지 왜 내 집을 잡혀서 담보를 서요? 부자지간에도 담보를 설 수가 없는 지경인데!' 그것도 무슨 까닭인가 하면 욕심이거든요. 어떤 이익을 얻으려는 데서 오는 욕심에 의해서 담보를 잡혀 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욕심에 의해서 집을 망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저 작게 먹고 편안히 살라고 하는 겁니다. 집이 아무리 좋으면 뭘 합니까? 나를 두고 하는 소리인지도 모르죠. 또, 내 몸통이 가 빌이라면 나는 오막살이 토굴이에요. 허허하... 빌딩이나 세련되고 좋은 집이 못되죠. 하지만 그 안에 들어서 사는 주인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마음을 먹고 사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있고 없는 것이지, 집이 크고 좋고 이래서만 행복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지금 뭐라고 들었는지, 뭐라고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허허하, 뭐라고 들었나? (대중 웃음)

▲크스님: 허허하... 사는 게 전부 변하고 돌아가는데 어찌 거기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살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장가를 든다 시집을 간다 하는데도 말입니다. 공합을 볼 게 아니죠. 가정이 서로가 맞는가. 또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또 신앙 신부가 걸맞는가. 그리고 서로 좋다고 하는가. 이게 공합이지 무슨 공합을 따로 볼 게 있습니까, 네? 날짜에 공합이 불고 윤회에 공합이 불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니 그 마음으로 차근차근히 심사숙고해서 맞으면, 아주 좋으면 그냥 공합이 맞는 겁니다. 여복하면 공합입니까? 마음에 맞아야 공합도 맞는 거지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공합이 맞습니까?

그리고 또 풍수지리는, 풍수를 보는 사람들이 여기 좋다 저기 좋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데는 그게 아닙니다. 지나가다가 마음에서 우러져 나와서 '아! 이 자리가 참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면 그 자리였다가 그냥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 밑이든 물이 질척하든, 그 자리를 파 보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내가 좌우를 봐서 '야, 이거는 참 좋겠다. 별이 들고 아래로 물이 흐르네...' 또 상황에 따라서 말입니다. '이게 참 좋구나, 앞은 산에 봉우리가 저렇게 있고 옆으로는 둘러싸여 울타리가 지고, 참 좋구나.' 이런 거뿐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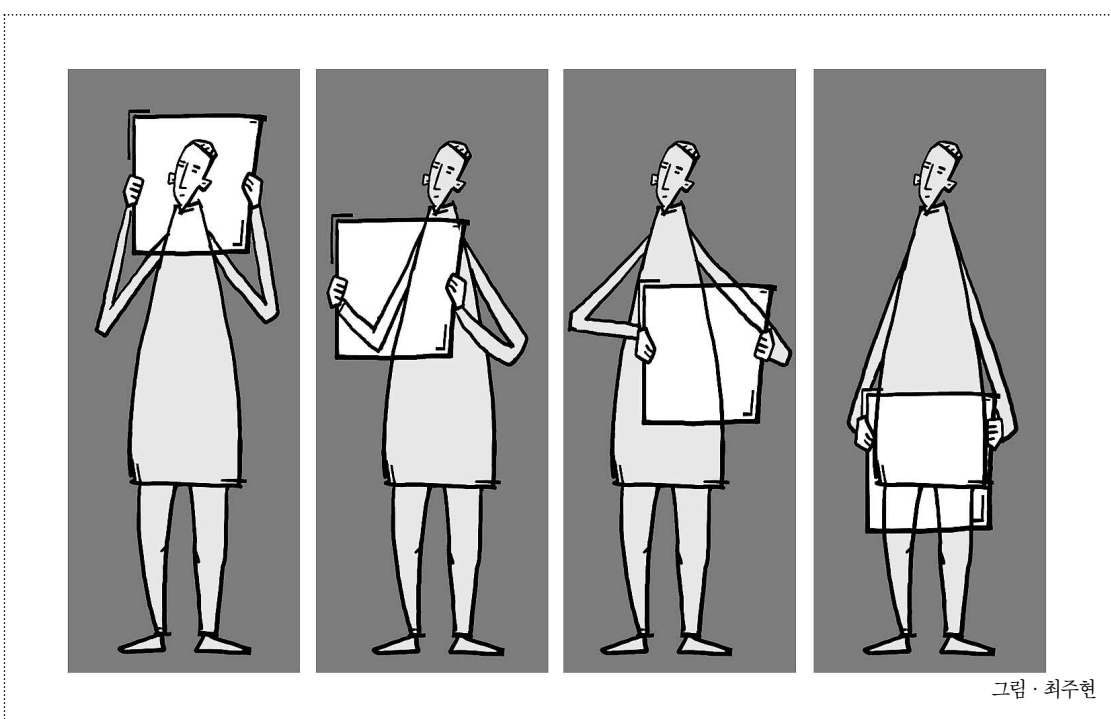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늘이 무너질 일이 생겨도 너그럽게 한번 믿고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이 필요합니다 ”

아니라 지형에 따라서 그 용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형에 따라서 내 마음을 정할 때에, 예를 들어서 여기 안양에 처음에 터를 마련해서 이 집을 짓는데 말입니다. 그 풍수 보는 사람들, 뭐 역학하는 사람들 모두 와서 여기서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주, 사람이 떼로 죽고 그런다는 거죠. 여기서 또 공동묘지였거든요. 그리고 굴왕신이 들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내가 그랬습니다. '히, 죽으면 한 번 죽지 두 번 죽어? 히, 굴왕신이 듣기는 무슨 굴왕신이 들어? 내 마음이 굴왕신이고 내 마음이 다 그 자리를 잡으면 되는 거지 굴왕신이 따로 있어?' 그렇게 그냥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지었어요. 그런데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어도 죽지 않습니까? (대중 웃음) 허허하...

그런 거와 같이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귀신도 자리를 보고 탐미치 떨어놓고 탐미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을 피하려고 애쓰고 그러면 자꾸 재밌어서 쫓아가고 히, 귀신이 오는 거를 그냥 탁 집어서 집어삼키면 쫓아올 것도 없고 갈 것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귀신이 따로 있고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고 귀신이 살아야 사람이지. 허허하... (대중 웃음) 산골이나 밭중이나 그름밭에 가다 보면 누구든지 꼭 무서워서 떨떨떨떨 떨어요. 히, 그런데 저는요, 깊은 산속, 그 수십리 밖의 산골이라도 늠름했던 것

에 복이 하나가 췌어 있어요. 허허하... (대중 웃음, 박수) 그 복이 표랑지를 잡고 딱딱 돌로다가 쳐서 열구리에다가 쓱 끼고선 이제 가는 거죠. 또, 그러면 산신 모시는 산당이 있죠? 그런 데로 들어가죠. 거기에 위패도 해 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정말이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아주 오통기와집 같어요. 또 상 차려 놓은 날판지에 단을 해 봤지 않습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위패를 베고 드러누워 있으면 세상천지가 전부 내 자리 같어요. (대중 웃음) 정말입니다. 이거는 말로 어떻게 행동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을...' 하면서 말입니다. 허허하...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사시면서 내가 좋았던 그 마음만큼 그렇게 좋아 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좋습니다. 그런데요, 그 습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내가 지금도, 이렇게 큰 집에서 살고 하면서도 지나가다가 다리 밑 구렁만 봐도요, '어휴, 저기서도 잘 만한테...' 허허하... (대중 웃음, 박수) 습이라는 것이 참 기가 막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또 율막이나 뭐 창고라든가, 짚로다가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고 '아이고, 저기도 살 만한테.' 이래요. 여기 삼파사 올라가는 데 저 위로 빈 율막집이 있는데 '저긴 저렇게 살 만한테 왜 비워 놔을까?' 허허하, 아, 이리다가 한번 '침, 습이라는 게 이렇게... 마음이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 윤회라는 것이 알고본다면 모두 공했으니 집착하거나 매이지 말고 벗어나라!

은 뭐냐, 틀이 아닌 까닭입니다. 오히려 도움을 받았지, 삼피 안팎으로 모두 도움을 받았지 해를 받은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 한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고 말입니다. 남떠러지가 있으면 가르쳐 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칼다가도 남떠러지가 되면 '아이구, 여기 남떠러지입니다. 가지 마십시오.' 이라고, 하다가 부엉새도 도와주고, 산비둘기도 도와주고, 지나가기는 뱀도 도와주고 그냥 모두가 다 도와주는데 내가 왜 걱정을 합니까? 뭐가 무서워요?

그런데 무섭다는 건 틀로 보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귀신이 나올까봐 겁나고 목신이 나올까봐 겁나고 말입니다. 그래서 목신도 '참 마음 좋은 사람 오는구나.' 이렇게 좋아하며 미리 저만치 나와서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왜 내가 무서워합니까? 허허하... 또 공양도 제공하고 말입니다. 무슨 공양이냐고요? 그 목신이 말하기를 '저기 조금만 돌아가시면 공양이 있으니 거기 가서 잡으시라.' 그러거든요. 돌아가면 열락없이 새끼오라지

합니다. 큰 집은 생각을 안 하고요, 꼭 그런 것만이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이 드는 거 보니까 무척 징이 들었던 모양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해 보지 않았던 사람은 지금도 못합니다. 강릉을 들고 얻어먹어 보지 않은 사람은 지금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상황에서 '너 강릉 들고 얻어와라.' 하면 못 얻어옵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주 능후하게 배웠어요. 허허하... 또 그 하고 구무마 끌고 가는 걸 보면요, '아이고, 비가 와도 저기서 그냥 자도 되겠고, 저기서 굶어 먹어도 되겠고, 뭐 괜찮겠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러나 글썽 얼마나 웃겨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내가 그냥 빙긋이 웃고 말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온, 습이라고 할 거는 없겠지마는 그 과정이 얼마나 지독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났든 못났든, 작든 크든, 배웠든 못 배웠든 집 걱정은 하지 마시고, 주인이 어떻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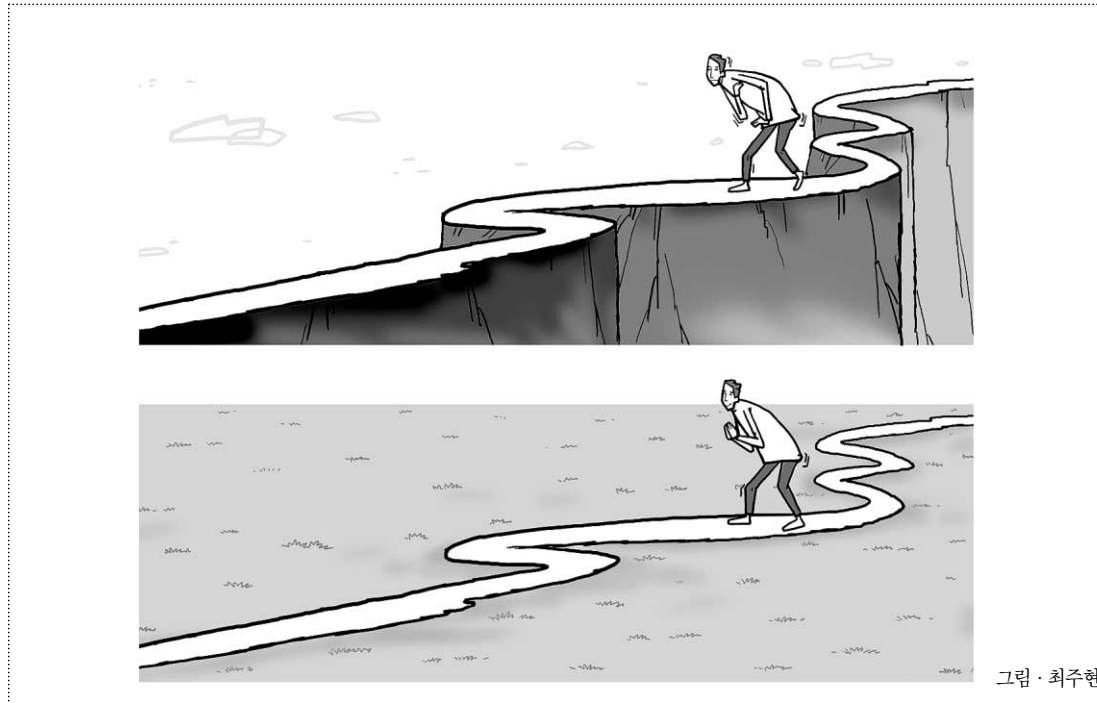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